李王妃殿下御歌九首　香山光郎謹譯

『이것은 大東亞戰下에 朝夕으로 늣긴바 멧가지를 을픈것이니 모든 무리의게 말하는 대신으로 傳하고 십흐다』하시는 말슴을 부치시와 내리신 노래。

大東亞戰下에 마음에 느ㅅ긴바를 을픈 노래

아모러한 물결이 밀어오더라도 백성된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밀어물리치과져

큰 싸홈한창 버러진 이ㅅ대언만 편안들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福을 닛지말아라

戰場에 나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라위하야 바ㅅ드는 힘이 되세 우리들 닐어나서

ㅅ굼을 못ㅅ개인 사람이 만흔지라 ㅅ가 ㅅ닥하면은 뒤ㅅ덜어지쉬운 오늘의 형편이어

아무러하게 이 몸 부서지기로 아ㅅ가을것가 크오신 닝금의 일 일우어노키ㅅ가지

모도 저마다 마음을 굿게 먹고 나라위하야 붓그럽지아니한 사람으로 나갓스라

昭和十九年度부터 우리故鄕 젊은이들도 兵役에부르심밧다는 말을듯고

다 한가지로 나라를 지키라고 부르옵시는 우리 닝금의 ㅅ듯 황송도하시와라

나라위하야 한마음이 되어서 힘다하여라 닝금님의 군사로 나서는 젊은이들

젊은이들아 그 집안 사람들아 닝금위하와 참마음 하나으로 닐어나라하노라

大東亞戰下に思ふこゝろを詠める歌

方子女王

いかならむ波よせくとも御民みな　ひとつこゝろに打ちかへしてむ

みいくさのさなかたれとも安らかに　日ことをすこす幸をわするな

いくさ人の上をしのひて國のため　かけの力とたゝむわれらは

ゆめさめぬ人おほくしてともすれは　おくれかちなる世のさまにして

いかさまに身はくたくともおしからす　このおほみわさなしとくるまで

おのかしゝ心ひきしめ國の爲　はちなき人と進めとそ思ふ

昭和十九年度よりふるさとの若人も兵役に召さると聞きて

ともともに國のみたてとめしまさむ　大みこゝろそかしこかりける

君のためひとつこゝろにはけまなむ　しこのみたてとたゝむ若人

わかうとも家人とともに君のため　まことひとつにたてよとそ思ふ